

러시아 내전기 적군(赤軍) 기병의 형성과 운용*

이 정 하**

1. 서론
2. 적군 기병의 형성
3. 러시아 내전에서의 기병 운용
4. 맺음말

1. 서론

서부전선에서의 참호전 양상과 새로운 군사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기병에게 어떠한 군사적 효용성도 없다고 생각하였다.¹⁾ 러시아 제국군에서 기병장

* 세 분의 심사위원이 주신 심사평에 감사드리며, 편집상의 문제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랍니다. 지면상의 문제로 보다 더 자세하게 다루지 못한 연구는 후속 개별 작업을 통해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1) 제1차 세계대전 이전 몇몇 유럽 국가들 군내에서 벌어졌던 기병에 관한 논쟁에

교였으며 러시아 내전에서 백군(白軍)²⁾으로 참전하였던 V.S. 리타우에르(Vladimir Stanislavovitch Littauer)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어떻게 기병이 “단순한 정찰임무나 패주한 적들을 뒤쫓는 임무에나 가끔 투입될 정도로” 그 역할이 축소되었는지를 훗날 회상하였다.³⁾

제1차 세계대전과 혁명 발발 이후 러시아에서 적군(赤軍)과 백군 간에 벌어진 러시아 내전은 기병과 관련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전선이 광대한 것과 아울러, 깊게 제형 편성된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을 만큼의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양측의 전선은 언제나 방어선이 긴데 반해 종심은 매우 얇았다.⁴⁾ 이러한 전선 형태는 기동전을 수행하기에 유리하였고, 제1차 세계대전과는 달리 방자(防者)보다는 공자(攻者)에게 훨씬 유리하였다. 양측 모두에게 예비 병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방자의 방어선 중 병력의 밀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겨냥해 소수의 병력만으로 수행하는 공자의 돌파나 측면기동마저도 방자에게는 대재앙이 되기도 하였다. 러시아 내전이 양측의 대규모 기병에 의한 기동전의 양상을 띠었던

관해서는 특히 다음을 보라. Edward L. Katzenbach Jr., “The Horse Cavalry in the Twentieth Century,” Robert J. Art and Kenneth N. Waltz eds, *The Use of Force* (Boston: 1971), pp.277~297.

- 2) 1946년 소련군(蘇聯軍: *Sovetskaia armiia*)으로 명칭을 변경하기 전 러시아군을 일컫는 용어는 ‘노농적군(勞農赤軍: *Raboche-kres’ianskaia Krasnaia armiia*)’ 혹은 ‘붉은 군대’이다. 본고는 백군(白軍: *Belaia armiia*)과 비교하기 위해 적군(赤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 3) Vladimir S. Littauer, *Russian Hussar: A Story of the Imperial Cavalry 1911-1920* (Shippensburg, PA: 1993), p.107.
- 4)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각 전선 1km당 평균 4,000~5,000명의 병력과 약 150대의 야포가 배치되었던 반면, 적군의 경우, 내전이 가장 치열하던 1919년 말에조차도 단지 1km당 250명의 병력과 2대의 야포만을 운용할 수 있었다. M.A. Molodsygin ed., *Iz istorii grazhdanskoi voiny i interventsii 1917-1922 gg. Sbornik statei* (Moscow: 1974), p.210. 참고, 「K.E. 보로쉴로프와 적군(赤軍) 기병대: 기술결정론(Technical Determinism)에 대한 반론」, 『서양사연구』, vol. 49 (2013), pp.130-131.

것은 바로 이러한 특징에서 기인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과 다르게 방어선의 측면이 계속 노출되는 러시아 내전에서, 기동력과 타격력을 지닌 기병의 군사적 효용성은 높을 수밖에 없었다.

내전 초기 압도적인 기병병력을 이용한 백군의 기동전으로 인해 연속적으로 패배를 경험했던 적군 지도부는 제1차 세계대전의 경험에 집착함으로써 기병의 작전능력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고,⁵⁾ 기병 육성과 그 운용에도 극히 소극적이었다. 적군 군사인민위원장 레프 트로츠키(Lev Trotsky)는 내전 이후 적군 기병 발전의 주요 인물로 자임하였음에도, 내전 초기에는 기병이 군사적 “중요도 면에서 삼류병과”일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그가 보기에 “기병은 기본적으로 가장 후진적인 병과이다. 기병의 구조와 전투 방식은 지난 몇 세기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예컨대, 오늘날 코사크의 습격 방식은 16세기나 17세기의 그것과 똑같다.”⁶⁾ 이는 어느 정도 볼셰비키가 가지고 있던 이념적 성향과 러시아 제국군에 대한 혐오와 함께, 트로츠키에 의해 적군에 편입되어 트로츠키의 측근에서 복무하고 있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새로운 군사기술을 직접 목격하였던 제국군 출신 적군 지휘관들(즉, ‘군사 전문가들’⁷⁾)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었다. 즉, 그들이 볼셰비키였든 아니면 제국군에서 장교로 복무하고 있었던 군사 전문가들이었든지와는 상관없이, 모스크바의 적군 지휘부에게 기병은 군사적인 가치가 사라진 반동적이고 구시대적인 병과로 보였다.

5) S.S. Khromov, *Grazhdanskaia voina i voennaia interventsia v SSSR: Entsiklopediia* (Moscow: 1983), p.241.

6) Leon Trotsky, *How the Revolution Armed: The Military Writings and Speeches of Leon Trotsky* (London: 1979~1981), vol. 2, p.412.

7) ‘군사전문가(Voenspets)’는 前 제국군 장교들 중 적군에 복무하고 있던 지휘관들을 의미한다. ‘군사전문가’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A.G. Kavtaradze, *Voennye spetsialisty na sluzhbe Respubliki Sovetov 1917~1920 gg.*(Moscow: 1988).

내전 초기인 1918년부터 지속적으로 일선 부대의 많은 지휘관들이 ‘정규’ 기병대의 창설을 요구하는 와중에도, 트로츠키는 다음과 같이 그러한 요구들을 묵살하고는 하였다. “우리에게 기병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제국군 기병대의 고향은 스텝지대였고, 코사크들은 바로 그곳에 정착했다. 스텝지대는 반(反)혁명의 온상이다. 기병은 가장 반동적인 병과이며, 가장 오랫동안 전제정을 떠받치던 병과이다.”⁸⁾ 트로츠키를 비롯한 모스크바의 적군 지휘부의 기병에 대한 이러한 태도와 인식은, 1919년 중후반 백군 기병의 전략적 운용과 이로 인한 적군 남부전선의 붕괴에 직면했을 때에야 변하기 시작하였다.⁹⁾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러시아의 사회경제적 낙후성을 강조하면서, ‘시대착오적이고 구시대적인’ 기병이 큰 역할을 하였던 러시아 내전이 이를 반증한다고 생각하였다. 결국 이러한 생각은 내전 이후 스탈린 등을 중심으로 한 일군의 기병지휘관들이 선진적인 기계화계획의 주창자들에 반대해, 심지어 그들에 대한 숙청을 자행하면서까지 군사적으로 전혀 무가치한 기병을 유지하였다는 ‘편견’으로 이어졌다.¹⁰⁾ 본고는 기병이 러시아 내전에서 핵심 병과로 재등장

8) Trotsky, *How the Revolution Armed*, vol. 2, p.412.

9) 트로츠키의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문건이 바로 그가 1919년 11월 11일에 발표한 유명한 “프롤레타리아여! 말에 올라라! (Proletarians, To Horse)”이다. 적군 기병대의 필요성과 확충을 요구하였던 이 글에서 트로츠키는 러시아 내전을 기동전으로 규정하고, “기동의 가장 주요한 수단이 기병”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글은 “소비에트 공화국은 기병을 필요로 한다. 적군 기병대원들여! 진진하라! 프롤레타리아여! 말에 올라라! (The Soviet Republic needs cavalry. Red cavalymen, forwar! To horse, proletarians!)”로 끝맺는다. Trotsky, “Proletarians, To Horse,” *How the Revolution Armed*, vol. 2, pp.412-414. 1919년 중후반 이후 트로츠키를 비롯한 적군 지휘부의 기병에 대한 인식 변화에 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보다 자세히 논할 것을 약속드린다.

10) 기존 연구에서는 러시아 내전을 통해 군부 엘리트가 된 ‘무능하고 보수적’이었던 기병지휘관들로 인해, 새로운 군사기술의 도입을 포함한 소연방의 군사 발전이 지체되었다는 식의 주장이 지배적이다. 특히 스탈린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일부 기병지휘관들이 스탈린의 정치적 지원 하에 군 조직 개편이나 군

하는 과정과 그 운용상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의 첫 부분에서는 러시아 내전에서 적군 기병이 어떻게 탄생하였는지를 살펴볼 것이며, 두 번째 부분에서는 러시아 내전에서의 적군 기병 운용상 특징을 기동과 화력의 결합, 보병과의 공조, 전략 목표에 대한 기병의 대규모 운용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 적군 기병의 형성

가. 1918년-적군 기병의 기원

내전 초기 적군은 P.N. 크라스노프(Petr Nikolaevich Krasnov)와 A.I. 데니킨(Anton Ivanovic Denikin)이 이끄는 백군 기병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다. 이는 적군이 내전 초기 백군에게 군사적 주도권을 내주게 된 가장 큰 원인이었다. 특히 내전의 주요 전장이었던 남부 러시아에서 백군의 기병으로 인해 연이은

사교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생각은 별다른 근거 없이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왔다. 대표적으로 다음의 연구들을 보라. John Erickson, *Soviet High Command: A Military-Political History 1918-1941* (London: 1962); Richard Harrison, *The Russian Way of War: Operational Art, 1904-1940* (Lawrence: 2001); Mary Habeck, *Storm of Steel: The Development of Armor Doctrine in Germany and the Soviet Union, 1919-1939* (Ithaca: 2003); O.S. Elizarov, *Sovetskaia voennaia doktrina nakanue Velikoi Otechestvennoi Voyny* (St. Petersburg: 2001); R. Savushkin, *Razvitie sovetskikh vooruzhenykh sil i voennogo iskusstva v mezhuoennyi period (1921-iun' 1941 gg.)* (Moscow: 1989); Andrei A. Kokoshin, *Armiia i politika: Sovetskaia voenno-politicheskaia i voenno-strategicheskaia mysl' 1918-1991 gody* (Moscow: 1995); N.Iu. Kuleshova, "Voенno-doktrinal'nye ustanovskii Stalinskogo rukovodstva i repressi v Krasnoi Armii kontsa 1930-kh godov." *Otechestvennaia istoriia* 2(2001), pp.61~72. 이외에도 다음을 보라. 졸고, 「K.E. 보로실로프와 적군(赤軍) 기병대」, pp.123~127.

패배를 겪었음에도,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적군 지휘부는 기병 육성에 미온적이었다.

적군 기병 형성을 막은 현실적 요인도 물론 존재하고 있었다. 적군 지휘관들은 기병 부대를 조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기병과 군마를 확보할 수 없었다. 전통적으로 과거의 제국군에게 기병과 군마를 공급하던 주요 지역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남부와 동남부 지역은 내전 초기에 백군에게 점령된 상태였고, 돈(Don) 강 인근 지역과 우크라이나 그리고 남부 우랄 지역의 코사크 기병 대부분은 이미 백군에 가담하고 있었다. 따라서 적군 기병 형성의 성패는 백군 점령 지역이었던 러시아 남부와 동남부 지역을 탈환하는 데에 달려있었다.¹¹⁾ 자연스럽게 1918년 4월 말과 5월 초 내전의 주요 격전지는 남부 러시아 지역이 되었다.¹²⁾

모스크바의 지휘부의 기병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직접 백군에 맞서 작전을 펼쳐야 했던 일선 지휘관들에게 백군 기병은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실제로 적군이 전체 병력에서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전황을 주도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병의 부족 때문이었다. 당시 적군 정치국(*Politicheskaiia upravlenie RKKK: PU RKKK*)의 보고에 따르면, 남부전선 예하 적군 제8군, 제9군 그리고 제10군이 도합 보병 9만 3,580명, 기병 1만 5,908명, 야포 240문, 기관총 992정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이에 대항하던 백군은 보병 4만 5,000명, 기병 4만 명, 야포 130문, 기관총

11) A.Ia. Soshnikov, *Sovetskaia kavaleriia: Voenno-istoricheskii ocherk* (Moscow: 1984), p.1; *Sovetskaia voennaia entsiklopediia*, 8 vols. (Moscow: 1976~1980), vol. 4, p.13.

12) 1918년 11월 8일에 열린 제6차 당 대회에서 레닌은 “남부전선을 강화하고 더 강력한 병력을 확보하는 것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절실하다”고 언급하였다. “8 noiabria. Rezoliutsiia Shestogo Vserossiiskogo Chrezvychainogo s'ezda Sovetov po dokladu V.I. Lenina o mezhdunarodnom polozhenii,” *Dekrety Sovetskoi vlasti* (Moscow: 1957~), vol. 3, p.533.

100정을 보유하고 있었다.¹³⁾ 병력과 화력의 우세를 보이고 있는 적군에게 부족했던 것은 기병이었는데, 백군의 기병은 적군의 두 배가 넘는 병력이었다. 기병의 수적 우위를 이용하여 백군은 더 신속하게 기동할 수 있었고, 대규모 기병을 적시에 자신들이 원하는 전술-전략적 지점에 배치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적군이 예상치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타격을 가할 수 있었다.¹⁴⁾ 이러한 상황에서, 훗날 대규모 적군 기병부대로 발전하게 될 터인 몇몇 기병 파르티잔 부대가 남부 러시아에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기병을 둘러싼 의구심 때문에 당시의 파르티잔 형태로 활동하던 기병과 그 지휘관들은 다른 ‘정규’ 병과와 달리 중앙의 계획 하에 부대와 지휘관을 양성하는 과정이나 이에 따른 행정적 그리고 보급상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결국 이 당시의 적군 기병은 주로 남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에 산재해 있던 파르티잔 조직과 그 파르티잔 지휘관들에 의해 자체적으로 조직될 수밖에 없었다. 백군에 맞서 자신의 고향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빈곤한 코사크나 농민으로 구성된 파르티잔 부대가 훗날 적군 기병의 중추가 될 터였다.¹⁵⁾ 예컨대, 전(前) 제국군 부사관이었으며 이후 적군 기병

13) 러시아 국립 군사문서고(Rossiiskii Gosudarstvennyi Voennyi Arkhiv: 이하 RGVA로 표기), 폰드(fond, 이하 f. 로 표기) 9, 오피스(opis', 이하 op.로 표기) 26, 델로(delo, 이하 d.로 표기) 160, ll. 1-6.

14) A.S. Bubnov et al., *Grazhdanskaia voina* (Moscow: 1928), vol. 3, p.262.

15) 필자가 작성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러시아 내전 당시 적군 기병대에서 연대장(급) 이상의 보직을 맡고 있던 인물들 중 코사크 출신은 약 20% 정도에 불과하였다. 약 70%에 달하는 인물들은 주로 러시아계나 우크라이나계 지휘관들이었다. 이들은 1861년 농노해방 이후 비옥한 남부 러시아의 코사크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하였던 비(非)코사크, 즉 이노고로드니에(inogorodnie)였다. 이들은 코사크지역에서 농업노동자 혹은 소작인으로 생활하였으며, 토지에 관한 여러 문제와 소작관계로 인해 항상 코사크와 긴장상태에 놓여 있었다. 예를 들어,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 남부 러시아 인구의 절반도 안 되던 코사크가 이 지역 토지 중 약 80%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노고로드니에의 약 94.8%는

창설에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B.M. 두멘코(Boris Mokeevich Dumenko)는 1918년 2월 말 남부 러시아의 체르카스크(Cherkassk)에서 파르티잔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외에도 1918년 2월과 3월에 여러 파르티잔 기병대가 전선에서 자체 조직되고 있었다.¹⁶⁾ 1918년에 편성된 적군 파르티잔 부대 중 가장 대규모 부대는 살스크(Salsk) 스텝 지역에서 조직되었다. 적군 남부전선군의 보고에 따르면, 1918년 봄 동안 이 지역에서만 두멘코의 기병 파르티잔을 포함한 총 45개 파르티잔 부대가 활동 중이었고, 병력규모는 기병 1,800명을 포함한 총 6만 명이였다.¹⁷⁾

이들 파르티잔 부대가 각 지역에서 백군에 맞서 그 나름의 군사적 역할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 단일한 명령체계의 부재로 인해 소규모 기병부대들 간의 공조를 통한 효과적인 작전이 불가능하였다. 각 파르티잔 부대는 개별적으로 그리고 자체적으로 전투를 수행할

어떠한 토지도 소유하고 있지 못하였다. Konstantin A. Khmelevskii, *Krakh krasnovshchiny i nemetskoj interventsii na Donu: April' 1918—mart 1919 goda* (Rostov: 1965), pp.20~22; Vladimir A. Zolotov and Aleksandr P. Pronshtein, *Za zemliu, za voliu: Iz istorii narodnykh dvizhenii na Donu* (Rostov: 1974), p.214. 코사크의 경제적 조건이 이노고로드니예에 비해 나았다 하더라도, 코사크 또한 혁명이전 남부러시아의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경제적 분화가 심하였다. 즉, 부유한 코사크들이 남부 러시아의 백군의 군사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면, 당시 공화국 혁명군사위원회 정치국의 S.I. 구세프(Sergei Ivanovich Gusev)가 “적군 기병의 일부는 소비에트 정권을 따르는 빈민 코사크들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고 언급했듯이, 이노고로드니예가 적군 기병 충원의 주요한 근원이라면 빈민 코사크들은 또 다른 주요 충원기반이었다. *Voennyi vestnik*, nos. 2-3 (1921), p.16. 이노고로드니예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구자정, 「러시아 內戰期 까자크 自決主義의 대두와 南部 러시아 白軍運動의 형성」, 『학림』 제21호(2000), pp.161~189.

16) 이 시기 파르티잔 활동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Khmelevskii, *Krakh krasnovshchiny i nemetskoj interventsii*, p.40; I.V. Fotiev, *Pod ognennym stiagom: Vospominaniia uchastnikov grazhdanskoj voiny* (Moscow: 1972), p.135; Dmitrii S. Babichev, *Donskoe trudovoe kazachestvo v bor'be za vlast' Sovetov* (Rostov: 1969), p.153.

17) RGVA, f. 8383, op.1, d. 26, l. 8.

뿐이었다. 하지만 점차 단일한 명령체계를 통해 전투를 수행할 필요가 파르티잔 지휘관들 사이에서 주장되기 시작하면서, 1918년 7월 10일에 파르티잔 지휘관들의 협의를 거쳐 수십 개의 소규모 파르티잔 기병대를 통합하여, 두멘코와 S.M. 부돈니(Semen Mikhailovich Budennyi)를 각각 지휘관과 부지휘관으로 하는 약 700명 규모의 기병대가 조직되었다.¹⁸⁾ 이 부대의 규모는 8월 경 약 1,800명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로스토프 지역의 다양한 파르티잔 부대들이 병합하여 I.R. 아파나센코(Iosif Rodionovich Apanasenko) 등의 파르티잔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또 다른 연대 규모의 부대를 조직하였다.¹⁹⁾

이후 스탈린그라드로 명명될, 남부 러시아의 차리친(Tsaritsyn)은 적군 기병의 형성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장소였다. 1918년 6월 적군 패잔 병력은 이후 남부전선 제10군 사령관이 될 K.E. 보로실로프(Kliment Efremovich Voroshilov)와 군량 확보를 위해 남부전선으로 파견된 스탈린이 머물고 있던 차리친으로 도주하였다. 이후 차리친에서 적군은 보로실로프와 남부전선 혁명군사위원회 위원이었던 스탈린의 지휘 하에 백군과 일련의 포위전²⁰⁾을 치르게 되는데, 이러한 전투를 거치면서 제1기병군(*Pervaia konnaia armii*)의 중핵이 될 제4 그리고 제6기병사단이 조직될 터였다. 사실, 백군이 차리친을 포위하기 이전인 1918년 1월에도 이 지역에 이미 100여 명으로 구성된 1개 파르티잔 기병대가 조직된 적이

18) RGVA, f. 4783, op.2, d. 1, l. 10, 18-19; Ivan V. Tiulenev, *Sovetskaia kavaleriia v boiakh za rodinu* (Moscow: 1957), p.50.

19) Vasilii T. Sukhorukov, *XI armii v boiakh na severnom Kavkaze i nizhnei Volge 1918-1920 gg.* (Moscow: 1961), p.40; A. Altunin and N.G. Ganotskii, *Krasnoznamennyi Severo-Kavkazskii: Ocherk istorii Krasnoznamennogo Severo-Kavkazskogo voennogo okruga* (Rostov: 1971), p.44.

20) 차리친을 중심으로 한 포위전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Leonid L. Kliuev, *Bor'ba za Tsaritsyn 1918-1919 gg. S 7 shemani na otdel'nykh listakh* (Moscow: 1928).

있었지만,²¹⁾ 1918년 4월부터 5월까지 수많은 파르티잔 부대가 차리친을 중심으로 대규모 기병대로 통합 재편되기 시작하였다.²²⁾

1918년 말을 기준으로, 적군은 도합 22만 6,00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중 오직 2만 5,000명만 기병이었다.²³⁾ 이 2만 5,000명 중 4분의 1이상이 보로실로프의 남부전선 제10군 예하에 있었다.²⁴⁾ 게다가 이후 제1기병군 제4기병사단 지휘관이 될 S.K. 티모셴코(Semen Konstantinovich Timoshenko)와 D.F. 세르디치(Danilo Fedorovich Serdich)가 각각 750명과 730명의 기병 병력과 함께 차리친에 합류하였다.²⁵⁾ 1918년 8월 I.F. 비카도로프(Issak Fedorovich Bykadorov)의 백군 기병의 포위공격에 맞서 차리친의 적군 기병은 백군 후위에 대해 약 120km에 달하는 습격을 감행하였다. 이는 적군에 의해 수행된 최초의 기병습격이었다.²⁶⁾ 그러나 여전히 적군 지휘부가 기병의 효용성을 불신한 탓에 대규모 기병대의 창설은 느리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²⁷⁾ 몇몇

21) Esfir' B. Genkina, *Bor'ba za Tsaritsyn v 1918 godu* (Moscow: 1940), pp.29~30.

22) 자생적인 파르티잔 부대 외에도, 전(前) 제국군 대령이었으며, 이후 제2기병군 지휘관이 될 F.K. 미로노프(Filipp Kuz'mich Mironov) 예하 제32 돈 코사크 연대도 이 시기에 차리친에 주둔한 적군에 합류하였다. 차리친 지역에서의 파르티잔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Babichev, *Donskoe trudovoe kazachestvo*, p.152; I.M. Borokhova and A.G. Bepalova et al., *Bor'ba za vlast' Sovetov na Donu 1917-1920 gg: Sbornik dokumentov* (Rostov: 1957), p.349; Fotiev, *Pod ognennym stiagom*, pp.133-136; L.I. Bukhanova, *Iuzhnyi front (mai 1918-mart 1919): Bor'ba sovetskogo naroda s interventami i belogvardeitsami na iuge Rossii: Sbornik dokumentov* (Rostov: 1962), p.35.

23) RGVA, f.5, op.1, d.188, ll. 8-9.

24) Khmelevskii, *Krakh krasnovshchiny i nemetskoj interventsii*, pp.83~84.

25) D.F. Serdich, "Pervaia vstrecha s Budennyim," *Pervaia konnaia v izobrazhenii ee boitsov i komandirov* (Moscow: 1930), pp.85~86; idem., "Rabochie i krest'iane Balkanskogo poluostrova v konnitse Budennogo," *Krasnaia konnitsa*, no. 2(1935), pp.10~11.

26) Kliuev, *Bor'ba za Tsaritsyn*, p.26, 36.

27) Sergei S. Kamenev, *Zapiski o grazhdanskoi voine i voennom stroitel'stve:*

지휘관들, 특히 두멘코와 부돈니 등이 사단 규모의 강력한 기병대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고 모스크바의 최고사령부에 거듭 제안했으나 이들의 청원은 묵살되었다.²⁸⁾

나. 남부전선에서의 적군 기병의 발전

1918년 11월 제10군 예하 몇몇 지휘관들, 특히 두멘코와 부돈니의 계속된 요청으로 제10군 예하에 2개 기병사단의 창설을 요구하는 보고서가 제10군 혁명군사위원회에 제출되었다.²⁹⁾ 한편, 차리친으로부터 더 멀리 남쪽에 주둔하고 있던 적군 제11군이 데니킨의 백군과 쿠반 코사크들에게 공격받았고, 이 공격에서 살아남은 제11군 병력 중 일부, 특히 아파나센코가 지휘하고 있던 연대규모의 기병대가 보로실로프의 제10군에 합류하였다.³⁰⁾ 제10군은 이러한 인적-물적 자원을 갖고 1918년 말부터 1919년 봄까지 대규모 기병대를 조직해나갔다. 그 일환으로 1919년 1월 30일 제10군 혁명군사위원회는 명령 제49호로 제1 돈 기병여단과 1개 보병사단을 통합해 별동기병사단(*Otdel'naiia kavaleriiskaia diviziia*)을 창설하고 이를 두멘코와 부돈니에게 지휘토록 하였다.³¹⁾ 별동기병사단의 창설은 이후 등장할 제1기병군과 같은 전략기병의 탄생을 알리는

Izbrannye stat'i (Moscow: 1963), p.140.

28) S.M. Budennyi, *Proidennyi put'* (Moscow: 1958-1973), vol. 1, pp.105-108.

29) Andrei P. Aleksashenko, *Protiv Denikina: Sbornik vospominanii* (Moscow: 1969), p.103.

30) Sukhorukov, *XI armiiia v boiakh*, pp.78-79, 192-196. 이 사단은 제10군에 소속된 후인 1919년 3월 23일부로 제6기병사단으로 개칭되었다. 1919년 3월 7일 두멘코의 기병대 창설 활동과 제6기병사단으로의 재편성에 관해서는 당시 제6기병사단 정치인민위원이었던 V.I. 베를로프(Vasilii Ivanovich Berlov)의 회고록도 참고하라. V.I. Berlov, *V plameni, v porokhovom dymu: Zapiski politkommissar* (Stavropol': 1973), p.3.

31) RGVA, f. 8067, op. 1, d. 6, l. 34; f.193, op.1, d. 14, l. 1.

신호였다.

1918년 12월 이후 보로실로프를 이어 제10군을 지휘했던 A.I. 예고로프(Aleksandr Il'ich Egorov)는 강력한 기병을 보유하는 것이 백군의 강력한 기병에 맞서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사령관으로 부임한 직후 예고로프는 제10군 예하 전체 기병병력을 이끌 지휘관으로 두멘코를 임명하였다.³²⁾ 이에 따라 두멘코의 부지휘관이었던 부돈니가 두멘코의 뒤를 이어 제4기병사단³³⁾의 지휘관이 되었다. 예하 기병병력을 백군에 대한 총공세를 위해 전략적으로 이용하고자³⁴⁾ 생각했던 예고로프는 두멘코에게 즉시 “북쪽에 있는 적의 작전 지역으로 침투하고, [볼가강 인근의] 카미신스크(Kamyshinsk)의 아군 보병부대들과 공조하여, 적 후방 깊숙이 습격을 하여 적의 보급 및 통신 기지를 파괴하라”³⁵⁾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제10군 기병병력들은 백군 후위로 침투하여 약 400km에 달하는 지역을 습격하고, 야포 48문과 기관총 100정 이상 그리고 장갑열차 1 대를 포함한 수많은 군수물자와 장비를 노획하였다. 이 기병습격 덕분에 테니킨의 주력 기병 중 하나였던 크라스노프의 백군 코사크 기병이 격퇴되었고, 남부전선의 주도권이 잠시 동안이나마 적군으로 넘어갔다.³⁶⁾ 이로써 대규모 기병부대와 이들의 기동성이 큰 장점을 가진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증명되었고, 지금까지의 소규모 전술적 임무에만 머물렀던 적군 기병의 역할이 기병사단과 보병까지 동원된 전략적 목표에

32) 제10군 혁명군사위원회의 명령 제139호는 다음과 같다. “대규모 기병을 이용할 필요를 고려할 때, 제4기병사단 지휘관 두멘코를 제10군 기병담당 부참모장으로 임명한다.” RGVA, f. 193, op. 1, d. 15, l. 171; op. 3, d. 771, l. 51.

33) 별동기병사단은 1919년 3월 14일부로 제10군 예하 제4 기병사단으로 개칭되었다.

34) Kliuev, *Bor'ba za Tsaritsyn*, p.33.

35) N.Ia. Kopylov, “K biografii Marshala Sovetskogo Soiuza A.I. Egorova,” *Istoricheskii arkhiv*, no. 1 (1962), p.203.

36) RGVA, f. 193, op.1, d. 29, l. 74.

대한 공격으로 변화하였다.

제10군과 마찬가지로 남부전선 제9군도 예하 제14기병사단 제3기병연대를 1919년 8월 13일부로 기병여단으로 재편하면서,³⁷⁾ 1919년 중반 적군은 총병력 3만 명으로 추산되는 5개 기병사단(제1, 제4, 제6, 제7, 제3 투르케스탄 기병사단)을 보유하게 되었다.³⁸⁾

다. ‘마몬토프 습격(Reid Mamontova)’과 적군의 전략기병 형성

1919년 5월 데니킨의 백군은 주력을 캅카스로 부터 차리친 인근으로 이동시켜, 남부전선에서 기병의 수적 우위를 이용한 새로운 공세를 시작하였다. 당시 백군은 9개의 기병사단과 3-4개의 기병여단을 이곳에 배치하였다.³⁹⁾ 공세 초반부터 백군 기병은 적군 제9군을 사분오열시켰고, S.G. 올라가이(Sergei Georgievich Ulagai)의 백군 기병군단은 그라베브스크(Grabbebsk) 지역으로 깊숙이 침투해 제10군 좌익을 교란하면서, 적군 남부전선의 주요 통신기지 와 보급기지를 파괴하였다. 결국 1919년 6월 9일에 데니킨의 백군은 제10군 좌익을 돌파하여, 이틀 후 남부전선의 중심지인 차리친을 다시 포위하게 되었다.⁴⁰⁾ 적군 최고사령부는 남부전선의 상황이 매우 긴박하다고 판단했다. “이제 남부전선은 분해되었다. 적은 승리에 도취되었고, 엄청난 정도로 용감하고 대담해졌다. [백군] 기병은 아군 후위 깊숙이 침투해 엄청난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37) A.A. Maslovskii, *Boevoi put' blinoutsev: Istoriia boev i pokhodov 5 Stavropol'skoi im. tov. Blinova kavaleriiskoi divizii 1919-1929* (Rostov: 1930), p.26.

38) P. Dmitriev, “Ispol'zovanie strategicheskikh rezervov Krasnoi Armii v vesennei kampanii 1919g.,” *Voенно-istoricheskii zhurnal*, no. 9 (1976), pp.64-65.

39) Maksim Gorkii, *Istoriia grazhdanskoi voiny v SSSR*. 5 vols. (Moscow: 1935-1960), vol. 4, p.70.

40) Mikhail A. Vodolagin, *Krasnyi Tsaritsyn* (Volgograd: 1967), p.136.

남부전선의 상황은 총체적 재앙과도 같다.”⁴¹⁾

1919년 5월까지 적군 남부전선이 보유하고 있던 기병 연대와 사단은 3-4개에 불과하였다. 기병을 이용한 백군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기병대가 시급하였다. 결국, 새롭게 제10군의 지휘관이 된 L.L. 클류예프(Leonid Lavrovich Kliuev)는 부돈니의 제4기병사단과 아파나센코의 제6기병사단을 통합하여 1919년 6월 26일 제1기병군단을 창설하였다.⁴²⁾ 부상으로 인해 두멘코가 지휘관의 책무를 수행할 수 없자, 부돈니가 기병군단의 지휘관으로 임명되었다.⁴³⁾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사건 하나가 발생하였다. 백군 지휘부가 적군 제10군 후위에 K.K. 마몬토프(Konstantin Konstantinovich Mamontov)의 기병군단을 투입한 것이었다. 이는 내전의 전황에 큰 영향을 주었던 소위 ‘마몬토프 습격’으로 불리는 작전이었다. 마몬토프가 이끄는 제4 돈 코사크 기병군단은 기병 6,000명, 보병 3,000명, 야포 12문, 장갑열차 7대 그리고 장갑차량 3대를 이용하여, 총 거리 2,200km에 달하는 엄청난 기병습격을 수행하여 적군의 통신망과 보급선을 파괴하였다. 마몬토프의 습격에는 분명한 전략적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은 적군의 후위를 교란하고 백군의 공세에 맞서 적군이 준비하고 있던 새로운 방어계획을 저지하는 것이었다.⁴⁴⁾ ‘마몬토프 습격’으로 인해, 돈 강 우안(右岸)에 주둔하고 있던 적군 제9군은 북쪽으로 퇴각하기 시작했고, 1919년 8월 18일에 마몬토프가 탐보프를 점령하게 되면서 남부전선에서의 적군 방어선 전체가 200km나 밀려났다.⁴⁵⁾ ‘마몬토프 습격’은 대규모

41) RGVA, f. 6, op.4, d. 212, l. 39.

42) Budennyi, *Proidennyi put'*, vol. 1, pp.167~168; Khromov, *Grazhdanskaia voina*, p.279.

43) RGVA, f. 193, op.3, d. 351, l. 108.

44) *Sovetskaia voennaia entsiklopediia*, vol. 5, p.112.

45) RGVA, f. 100, op.3, d. 69, ll. 250-251.

기병 운용과 기병습격의 성격을 여실히 보여주었다.⁴⁶⁾

1919년 9월 17일 돈 강을 도하한 후 9월 19일 A.G. 쉬쿠로(Andrei Grigor'evich Shkuro)의 본대로 귀환⁴⁷⁾할 때까지 이어졌던 ‘마몬토프 습격’으로 인해 지금까지 기병에 회의적이었던 모스크바의 적군 지휘부는 큰 충격을 받았다. 레닌이 남부전선 혁명군사위원회의 위원 M.M. 라셰비치(Mikhail Mikhailovich Lashevich)에게 보낸 전문에서 ‘마몬토프 습격’ 당시의 불안감이 잘 드러난다. “[우리는] 마몬토프의 성공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마몬토프는 도로와 보급기지를 파괴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매우 치명적인 것이다.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마몬토프 습격’에 대해 계속 보고하라!”⁴⁸⁾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공화국 혁명군사위원회(*Revoliutsionnyi voennyi sovet respubliki*: RVSR)는 이때부터 새로운 형태의 기병, 즉 전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규모 기병 창설을 결정하였다. 약 18개월의 전쟁 수행과 특히 이 시기 백군의 전략 기병운용에 충격을 받은 트로츠키를 비롯한 적군 지휘부는 기병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게 된다. 1919년 9월 15일에 공화국 혁명군사위원회는 기병 확충에 관한 명령을 내렸고,⁴⁹⁾ 약 2주 뒤인 10월 1일 국방위원회(*Sovet rabochei i krest'ianskoi oborony*: SRKO)는 기병 창설과 관련된 비용으로 20억 루블을 승인하였다.⁵⁰⁾ 적군 기병을 육성하는 일은 이제

46) Ibid., ll. 223-226; Khromov, *Grazhdanskaia voina*, p.341.

47) RGVA, f. 6, op.4, d. 179, l. 120.

48) F. Kariaeva and N.N. Azovtsev eds., *Direktivy komandovaniia frontov Krasnoi armii 1917-1922 gg.: Sbornik dokumenov*, 4 vols. (Moscow: 1971~1978), vol. 2, p.321.

49) RGVA, f. 4, op.18, d. 2, ll. 117~119.

50) “Instruktsiia o mobilizatsii loshadei, nakhodiashchikhsia v rasporiazhenii sovetskikh uchrezhdenii i ikh sluzhashchikh,” *Dekrety Sovetskoii vlasti*, vol. 6, p.453. 또한 다음을 보라. V.V. Ovechkin, “Iziatie loshadei u naseleniia dlia Krasnoi armii v gody grazhdanskoi voiny,” *Voprosy istorii*, no. 8 (1999),

남부전선의 문제에서 적군 전체의 사안이 되었다.

1919년 9월 초 부상에서 회복되어 복귀한 두멘코를 지휘관으로, 남부전선 예하 제37, 제38 기병여단과 D.P. 즐로바(Dmitrii Petrovich Zhloba)가 지휘하던 별동기병여단이 통합되어 1개 기병군단이 편성되었다.⁵¹⁾ 같은 시기에 적군 제9군 사령부도 9개 기병연대로 구성된 1개 기병단(*kavaleriiskaia grupp*)을 편성하여 M.F. 블리노프(Mikhail Fedoseevich Blinov)를 지휘관으로 임명하였다.⁵²⁾ 이제 1919년 9월경 적군도 두멘코와 부돈니가 각각 이끄는 2개의 기병군단과 블리노프의 1개 기병단으로 구성된 전략기병을 보유하게 되었다.

적군은 백군의 또 다른 대규모 기병습격에 대비하고 데니킨의 백군에 맞서 남부전선의 전황을 타개하기 위한 계획에 돌입하였다. 적군 최고사령부는 남부전선과 동남부전선의 모든 적군 병력을 동원하여 백군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가하고자 하였다. 그 일환으로 1919년 11월 중순 보병 7만 9,500명과 기병 1만 6,000명이 남부전선에 집결하였다. 이 때 집결한 병력 중에서 부돈니의 기병군단이 가장 강력하고 기동성이 높은 부대였다. 한편, 동남부전선에 있던 병력은 보병 3만 8,735명과 기병 9,750명이었다. 동남부전선에서 기동력과 타격력을 자랑하던 부대는 두멘코의 기병군단과 제9군 예하 블리노프의 기병단이었다.

바로 이 시기에 남부전선에서 제1기병군이 창설되었다. 남부전선의 상황을 논하기 위해 1919년 9월 26일에 개최된 중앙위원회총회에서 남부전선 강화를 위해 보다 대규모의 전략기병 창설이 논의

pp.114~124.

51) RGVA, f. 193, op.3, d. 352, l. 115. 화력보강을 위해 1919년 9월 말에는 기병군단에 9대의 장갑차량도 배치되었다.

52) RGVA, f. 7937, op.1, d. 95, l. 97. 기병단은 제14, 제23 그리고 제36 기병사단을 예하에 두었다.

되었고,⁵³⁾ 같은 날 공화국 혁명군사위원회는 당시 제4, 제6 그리고 제11 기병사단으로 구성되어 있던 부돈니의 제1기병군단을 기병군(*konnaia armia*)으로 확대 재편하도록 명령하였다.⁵⁴⁾ 이 명령으로 제4, 제6, 제11 기병사단 외에도, 제9, 제12 보병 사단과 소규모 장갑차량과 항공기 그리고 장갑열차도 제1기병군에 배치되었다.⁵⁵⁾ 이러한 부대 구성은 기병군이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군사조직이며, 보병과 긴밀하게 공조하는 강력한 제병협동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⁵⁶⁾ 1920년 초 즈음 제1기병군의 병력은 기병 1만 5,000명, 야포 19문, 기관총 238정, 장갑열차 8대였다.⁵⁷⁾

제1기병군의 창설로 인해, 1919년 가을 이후 내전의 전황은 백군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었다. 남부전선에서 적군의 공격이 성공하자 백군 병력은 아조프해를 두고 양쪽으로 분열되었다. 부돈니의 제1기병군은 먼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그리고 11월과 12월에는 돈 지역 중부에서 백군을 몰아냈고, 이후 돈 강 유역을 탈환한 뒤 남쪽으로 이동하였다.⁵⁸⁾ 결국, 1919년 12월 말 백군 제4 돈 기병군단 지휘관 올라가이는 남부전선의 전황에 대한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전체적인 전황으로 판단할 때,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의 기병은 존재하지 않는다.”⁵⁹⁾ 비록 러시아 영토 내에

53) Gennadii A. Belov, *Iz istorii grazhdanskoi voiny v SSSR 1918~1922: Sbornik dokumentov i materialov*, 3 vols. (Moscow: 1960), vol. 2, pp.459~460.

54) 공식 창설일자는 남부전선 혁명군사위원회의 명령이 발표된 1919년 11월 17일이다.

55) RGVA, f. 6, op.4, d. 331, ll. 2-10. 이후 폴란드와의 전쟁을 위해, 제1, 제2, 제8, 제9, 제14 그리고 제19 기병사단 등이 1920-1921년 시기에 제1기병군 예하에 들어오게 된다.

56) S.M. Budennyi, “Prazdnik RKKA v krasnoi konnitsy,” *Krasnaia konnitsa*, no. 2 (1935), p.2.

57) Azovtsev, *Direktivy komandovaniia frontov Krasnoi armii*, vol. 4, p.121.

58) Gorkii, *Istoriia grazhdanskoi voiny*, vol. 4, p.290.

59) Petr N. Vrangeli, *Vospominaniia generala barona P.N. Vrangelia* (Frankfurt/Main:

서 전투는 1920년 11월경에 종결될 터이지만, 제1기병군과 같은 전략기병의 등장은 기병의 기동과 습격이 그 전투의 특징이었던 남부전선, 더 나아가 러시아 내전이 결국은 적군의 승리로 귀결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1920년 봄 즈음에 러시아 내전은 사실상 종결되었다.⁶⁰⁾

3. 러시아 내전에서의 기병 운용

러시아 내전은 기병의 전쟁이었다. 1919년 7월경 테니킨 예하 백군의 전 병력이 볼가 강 유역에서 갈리시아까지 길게 늘어진 전선에 포진해 있었을 때 그 수는 10개 군단, 총 11만 명의 병력이었다. 당시 적군의 보고에 따르면, 이 11만 명의 병력 중 약 5만 8,000명이 기병이었다.⁶¹⁾ 1919년 5월 21일 로스토프의 벨리코크냐제스키(Velikokniazheskii)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백군의 P.N. 브랑겔(Petr Nikolaevich Vrangel')은 2만-2만 5,000명으로

1969), p.256.

60) 제1기병군의 창설이후에도 적군 지휘부는 계속해서 상급 기병부대의 수를 늘려갔다. 캅카스전선에서 제2기병군단(2-i konnyi korpus), 서부전선 제4군 예하에 G.D. 가이(Gaia Dmitrievich Gai)의 제3기병군단(3-i konnyi korpus), 남부전선 제13군 예하 제5기병사단과 제9기병사단을 기반으로 N.D. 카쉬린(Nikolai Dmitrievich Kashirin)이 이끄는 1개 기병군단이 창설되었다. 이후 제7기병사단이 이 기병군단의 편제에 포함된다. 결국, 1920년에 적군은 총 27개 기병사단과 수 개의 별도 기병여단들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 수치는 1920년 1월 15일 적군 서부전선, 남서부전선 그리고 투르케스탄전선의 진황보고를 기반으로 추산한 것이다. 서부전선에 관한 적군의 보고는 다음을 보라. RGVA, f. 6, op.4, d. 331, ll. 156-183. 남서부전선의 보고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RGVA, f. 6, op.4, d. 253, l. 43; op.3, d. 4, ll. 11, 13, 78; d. 5, l. 130. 투르케스탄전선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RGVA, f. 185, op.3, d. 639, ll. 107-116. 이외에도 다음을 참고하라. *Sovetskaia voennaia entsiklopediia*, vol. 3, p.435.

61) RGVA, f. 5, op.1, d. 188, ll. 106-107.

구성된 기병 연대 36개를 배치하기도 하였다.⁶²⁾ 적군 기병 비율도 백군에 비해 낮은 수치이기는 했으나 결코 적지 않았다. 소비에트-폴란드 전쟁이 한창이었던 1920년 10월 15일 당시 적군이 전선에 배치한 총 병력은 40만 명에 달했는데, 이 중 7만 2,000명이 기병이었다.⁶³⁾ 따라서 기병 대 보병의 비율은 약 1 대 5.5이었다. 적군 지휘부가 여전히 기병 창설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을 때인 1918년 말에, 적군 내 기병 대 보병의 비율이 1 대 9 정도였음을 감안한다면,⁶⁴⁾ 이 수치상의 차이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그러나 러시아 내전에서 기병의 의미는 단순히 수치상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은 아니었다. 기병은 러시아 내전에서 군사적 효용성을 입증하였다. 한때 기병의 가치에 가장 회의적이었던 트로츠키마저도 백군 기병의 전략적 운용으로 인해 남부전선이 붕괴될 시점이었던 1919년 6월 레닌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면서, 기병의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병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승패가 기병의 손에 달려 있다는 점만 깨달으면 된다.”⁶⁵⁾

적군 기병은 전술적 측면에서, 적의 저항을 분쇄하기 위해 화력과 기동을 결합하여 측면 우회기동이나 적 후방 침투를 수행하였고, 전략적 측면에서, 이전의 전술적 임무를 넘어 대규모 기병을 이용한 전략적 목표에 대한 습격을 통해 기병 운용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요컨대, 러시아 내전에서 적군 기병 운용의 핵심은 첫째, 기동과 화력의 결합, 둘째, 보병과의 공조, 셋째, 전략 목표에 대한 기병의 대규모 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62) RGVA, f. 6, op, 4, d. 641, l. 79.

63) 이 수치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RGVA, f. 6, op, 4, d. 641, ll. 49-76; d. 694, ll. 79-80; d. 695, ll. 37-38.

64) RGVA, f. 5, op.1, d. 188, ll. 8-9.

65) Leon Trotsky, *The Trotsky Papers, 1917-1922* (Hague: 1964-1971), vol. 1, pp.530-531.

가. 기동과 화력의 결합

어떤 이는 기병이 러시아 내전에서 부활했다는 사실 때문에, 적군이 러시아 내전에서 기마전투(騎馬戰鬪)에만 집착하고 돌격만을 일삼는 과거의 전투방식을 유지하였을 것이라고 오해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군 기병 운용에서 가장 중요했던 특징은 기병의 기동성과 습격 그리고 화력을 결합하고자 했던 시도였다.⁶⁶⁾ 적군과 백군의 기병 모두 구(舊) 제국군으로부터 파생하였으나, 전투 방식과 그 운용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백군 기병은 화기를 이용한 하마전투(下馬戰鬪)를 기피했던 반면, 적군 기병은 화력과 기동을 결합한 전투 방식을 선호하였다. ‘마몬토프 습격’으로 유명한 마몬토프도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하마전투를 허용하겠다는 명령을 내렸다.⁶⁷⁾ 제1기병군 제4기병사단의 참모장이었던 I.D. 코소고프(Ivan Dmitrievich Kosogov)에 따르면, “기병 ‘돌격’에 대한 숭배와 ‘도검류’에 대한 선호, 그리고 화기에 대한 혐오가 돈 코사크, 쿠반 코사크 그리고 백군 기병의 주요한 특징이었다.”⁶⁸⁾ 구(舊) 제국군 육군 소장이었으며 백군으로 내전에 참전하였던 A.K. 켈첵스키(Anatolii Kiprianovich Kelchevskii)가 보기에 돈 코사크 기병은 선천적으로 하마전투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하마전투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듯했다. 이러한 성격의 주된 원인을 켈첵스키는 퇴각에 실패해 적에게 붙잡히게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평하기도 하였다. 한 코사크 병사는 켈첵스키에게 이렇게 말했다. “말을 타지 않고 보병처럼 싸운다면 내가 아무 힘도 없는 아낙네가 된 것처럼 느껴진다.”⁶⁹⁾

66)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도 참고하라. 줄고, 「K.E. 보로셀로프와 적군(赤軍) 기병대」, 131~133쪽.

67) Ivan D. Kosogov, “Taktika krupnykh konnykh mass v epokhu grazhdanskoi voiny,” A.S. Bubnov et al., *Grazhdanskaia voina*, vol. 1, p.162.

68) Ibid.

이에 반해, 전선 전면에서 중(重)기관총과 야포를 이용한 집중 포화로 엄호를 하는 동시에 기병이 적의 후면이나 측면을 습격하는 전술이 적군 기병이 보여준 전형적인 전술이었다고 코소고프는 술회하였다.⁷⁰⁾ 어떤 경우에는 기관총 사격과 포격만으로도 적군 기병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도 하였다. “종종 일제 엄호사격만으로 적들은 전투 불능이 되었고, 우리 기병은 뒷마무리만 하면 되는 경우도 많았다.”⁷¹⁾ 기병이 투입되기 전부터 시작된 기관총과 야포를 이용한 일제 사격은 특히 부돈니가 지휘했던 제1기병군의 전형적인 공격 방법이었다. 켈체스키는 자신의 적이 펼치는 전술을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그들[두멘코와 부돈니]은 기병전의 본질과 전투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병전 수행 방식에 몇몇 중요한 수정을 가하였다.” 적군 기병의 전투 방식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그들[적군 기병]은 수 개의 ‘전방 선견대(*peredovyi eskadron*)’에 의한 대담한 정찰을 도입하였다. 보통 백군은 1개 기병중대로 이루어진 소규모 정찰대를 보내는 반면에 적군은 여러 방향으로 2개 기병중대 심지어 3개 기병중대 규모의 정찰대를 운용하였다. 또한 이들 정찰대에는 많은 수의 타찬카(*tachanka*)가 배치되었다. 대규모 기병과 타찬카를 통해 적군 기병 정찰대는 정찰 임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종 적의 소규모 부대나 정찰대를 격퇴할 수도 있었다. [...] 강력한 정찰 부대와 함께, 두멘코와 부돈니는 수 개의 연대급 혹은 여단급 규모의 부대로 구성된 선봉 부대의 보호 하에 본대를 이끈다. [...] 원거리 포격 후, 본대는 많은 수의 야포와 타찬카에 설치된 기관총 혹은 2-4대의 장갑차량을 이용하여 우리 전선을 공격한다. 이들의 화력에 의해 백군 기병 선봉은 와해되기 시작한다. 대포와 기관총을 퍼붓는 동안, 보통 [적군] 기병사단의 선봉 연대들이

69) A.K. Kelchevskii, *Dumenko i Budennyi: Rol', znachenie i takticheskie priemu konnitsy v Russkoi grazhdanskoi voine* (1920), p.6.

70) Kosogov, “Taktika krupnykh konnykh mass,” p.174.

71) Ibid.

광범위한 전선에 전개하여 우리 선봉 부대를 가차 없이 공격한다. [...] 백군이 진퇴양난에 빠져 후퇴할 때면 그들[두멘코와 부둔니]은 수십 베르스타(versta)⁷²⁾를 맹렬히 뒤쫓는다. 처음에는 몇몇 연대에서 임시로 선발된 기병대가 장갑차량과 함께 백군을 추격하였지만, 이후에는 장갑차량을 장비한 별도 기병중대들이 백군을 추격한다. 추격은 한 방향, 또는 종종 두 방향에서 이루어지는데 때때로 그 거리가 70 베르스타에 달하기도 하였다.⁷³⁾

화력과 기동을 결합하는 문제에 있어서, 적군 기병은 거의 모든 군사적 상황에서 기병대와 함께 작전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기동 장비인 ‘타찬카’를 이용하였다. 보통 말 세 필이 끌던 타찬카는 농가에서 사용하던 수레를 개조한 이동장비로, 중(重)기관총과 탄약 그리고 세 명의 인원(마부, 기관총 사수, 보조 사수)을 싣고 다녔다. 기관총은 후면이나 측면을 향해 발사가 가능하게끔 고정되어 있었다. 도로가 없어도 신속한 이동이 가능했기 때문에 장갑차량의 운용이 불가능하였던 지역에서 타찬카는 진가를 드러냈다. 이런 식으로, 엄청난 무게와 크기 때문에 그때까지 방어 무기로만 운용되었던 중(重)기관총은 기병 공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또한 타찬카는 아군 퇴각시 이를 엄호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면서 적군 기병의 기마전투와 하마전투 모두 용이하게 하였고, 때때로 기병끼리 교전을 벌이는 경우에 타찬카와 기관총의 지원은 기마포병의 지원임무와 유사한 역할을 하였다.

적군은 기동성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기병의 화력을 높이는 방법을 통해 많은 전과를 올렸다. 예를 들어, 1919년 초 백군에 의해 교착상태에 있던 남부전선에서 당시 제10군 지휘관이었던 예고로프는 두멘코에게 예하 기병의 화력을 높이기 위해 일종의 기관총 기동돌격대를 창설하라고 명령했다. 이 별도부대는 타찬카에 장비한 중(重)기관총 16정을 장비하고 있었고, 나중에 이 부대에 2개

72) 1 베르스타(versta)는 약 1.07km이다.

73) Kelchevskii, *Dumenko i Budennyi*, pp.10~12.

보병대대가 합류하면서 부대원은 1,600명에 달하였다.⁷⁴⁾ 타찬카와 기관총 기동돌격대 등을 통해, 기병의 원초적인 약점이었던 화력의 부족을 보병 수준의 화력으로 상승시키고 이를 기병의 장점인 기동력과 결합하여 기마-하마전투를 펼칠 수 있었다. 또 다른 사례로 크림 반도를 놓고 1920년 11월 11일 우크라이나의 카르포바 발카(Karpova Balka)에서 치러진 전투를 들 수 있다. 1920년에 편성된 제2기병군(*Vtoraia konnaia armiia*)⁷⁵⁾은 기관총을 탑재한 250대 이상의 타찬카를 동원하여 I.G. 바르보비치(Ivan Gavrilovich Barbovich)가 지휘하는 백군 기병을 공격하였다. 기마전투와 돌격에 치중하던 백군 기병은 적군의 화력으로 인해 엄청난 사상자를 내면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우크라이나 본토와 크림 반도를 잇는 페레코프 지협에 대한 백군의 공격은 무위로 끝났다.⁷⁶⁾

나. 보병과의 공조

적군의 각 기병사단들은 일반적으로 기관총을 장비한 타찬카를 50-75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또한 각각 기관총 18대를 보유한 1,000-1,500명으로 구성된 보병대대를 보유하고 있었다.⁷⁷⁾ 어쩌면 기병부대 내에 보병이 배치되었다는 사실이 논리적 모순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강력한 보병의 존재는 기병의 기동을 위한

74) Ivan P. Tolmachev, *V stepiakh donskikh* (Moscow: 1959), p.26.

75) 제2기병군은 1920년 6월 16일에 창설되었다. 남서부전선의 명령에 의해 창설된 제2기병군의 창설 당시 병력은 기병 4,775명, 보병 639명, 기관총 308정, 야포 55문, 장갑차량 639대이었다. 지휘관은 제1기병군 제4기병사단의 지휘관이었던 O.I. 고로도비코프(Oka Ivanovich Gorodovikov)였다. RGVA, f. 246, op.3, d. 158, ll. 15, 18, 19, 24.

76) Soshnikov, *Sovetskaia kavaleriia*, pp.23-24.

77) Kosogov, "Taktika krupnykh konnykh mass," p.166.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다. 기병부대에 배치된 보병부대는 종종 기동을 수행하는 기병이 보다 효율적으로 망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을 한 자리에 고정시켜 놓는 역할, 즉 모루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 가령 적이 기병의 기동을 저지한다면, 보병부대가 적을 한 지점에 고착시키는 동시에 기병은 적을 우회하여 기동을 계속 지속하는 식이었다. 문제는 보병과의 공조가 기병의 기동력을 손상하지 않은 조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였던 방법이 타찬카를 보병의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한때 적군으로 내전에 참전하였던 N.I. 마흐노(Nestor Ivanovich Makhno)의 보병 분견대는 수일 동안 쉬지 않고 하루에 100km를 기병부대와 함께 이동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동력을 이용하여, 마흐노는 1919년 9월 키예프 인근에서 수행한 작전에서 11일 만에 약 600km를 이동하여 백군 후위를 공격할 수 있었다.⁷⁸⁾ 결국 타찬카를 보병의 이동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기병과 속도를 맞추고 적시에 기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보병과의 협동을 통해, 기병의 기동이 촉진되고 기동의 모멘텀이 유지되었다. 이를 위해 보통 각각의 보병대대는 약 200여 대의 타찬카를 보유하고 있었다.⁷⁹⁾ 타찬카에 탑승한 보병의 경우 일반적으로 하루에 60~100km를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동성이 높았다.

한때 제10군 사령관이었으며 1919년 10월부터 남부전선 사령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예고로프는 ‘마몬토프 습격’ 이후 대규모 기병을 이용한 작전에 관해 예하 기병 지휘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나는 충격집단(*udarnaia gruppа*) 지휘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분명히 명령한다.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적의 전선을 돌파하려

78) Anton Ivanovich Denikin, *Ocherki russkoi smuty*(Paris: 1921~1926), vol. 5, pp.162~163.

79) Kosogov, “Taktika krupnykh konnykh mass,” p.166.

하지 말고, 병력을 집중하여 적 주력의 양익을 공격하라. 모든 성공은 오직 대규모 습격과 기동에 의해서만 일궈낼 수 있음을 명심하라. 특히 대규모 기병대를 적의 양익에 집중시키는 동시에 반드시 보병과의 공조를 통해 적 기병의 측면과 후위를 공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⁸⁰⁾ 적군 기병이 보병과의 공조 속에서 화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전술을 펼치게 되면서, 내전 초반 적군에 대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백군 기병의 전투력은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 내전의 양상이 기병간의 전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염두에 둔다면 이는 곧 백군 전체의 전투력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다. 전략적 목표에 대한 대규모 기병 운용

적군 기병의 또 다른 중요한 기병 운용 방식은, 기병을 대규모로 조직하여 전술 임무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전략기병(*strategicheskaiia kavaleriia*)으로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전략기병에 의한 대규모 습격은 철도 등의 교통 요지나 보급창과 같은 전략적 요충지를 목표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본대의 상급 작전과의 공조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작전 기동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적군은 별동 기병여단, 기병사단, 기병군단, 기병군 등 다양한 규모의 전략 기병대를 보유하고 있었다.⁸¹⁾ 특히 제1기병군과 같은 군(*armiiia*) 규모의 기병대는 적군

80) RGVA, f. 6, op.4, d. 116, l. 122.

81) 1921년 당시 적군의 전략기병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별동 기병여단 (전투시 평균 1,000-2,700명으로 구성)-2,603명의 병력, 2,839필의 군마, 2개 기병연대와 야포 4문으로 구성된 1개 포병대 혹은 8문 이상의 야포로 구성된 1개 포병대대; 2) 기병 사단 (전투시 3,000-8,000명으로 구성)-3개의 기병여단 (각각 4개의 대대로 구성된 총 6개 연대), 9,499명의 병력과 1만 210필의 군마, 3개 대대로 구성된 기마 기관총연대, 60대의 타찬카, 소규모 장갑차부대, 통신

기병의 전략 기동에서 중요한 자원이었다.

‘마몬토프 습격’에 대응하기 위해 적군 지휘부는 1919년 11월 초 라트비아 보병사단⁸²⁾과 V.K. 프리마코프(Vitalii Markovich Primakov)가 지휘하는 1개 기병사단⁸³⁾으로 구성된 별동 기동 부대를 남부전선에 파견하였다. 11월 2일 라트비아 보병 사단이

대대, 공병대대; 3) 기병군단-2개의 기병사단, 소규모 항공부대, 장갑열차, 자전거 중대, 소규모 전차부대, 1개 기술(통신과 공병을 포함한) 대대; 4) 기병군-3개에서 6개의 기병사단으로 구성(중종 2개에서 3개의 보병사단이 포함됨), 소규모 항공부대(일반적으로 6대의 정찰기로 구성), 장갑열차, 자전거 중대, 소규모 전차부대, 통신대대, 공병대대, 2개 장갑차소대. A. Pevnev, *Voiskovaia konnitsa i ee boevoe ispol'zovanie* (Moscow: 1926), pp.5-7. 1920년 폴란드로 진군하기 직전 제1기병군이 1만6000명의 기병을 보유하고 있기는 했지만, 남부전선에서 테니킨 장군의 백군과 전투를 벌였던 내전 대부분 기간 동안, 제1기병군의 기병 보유 규모는 대략 7,000명에서 1만 명 정도였다. G.D. 가이가 지휘하던 제3기병군단과 고로도비코프의 제2기병군의 기병 보유 규모는 약 3,000-4,000명 정도였다. Khromov, *Grazhdanskaia voina*, p.241.

82) 이 부대는 제1차세계대전 중이었던 1915년 독일군에 맞서 발트해 연안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러시아 제국군에 의해 라트비아에서 창설된 병력들이다. 1916년에 ‘라트비아 보병사단’이라는 명칭이 부여되었다. 혁명이 발발하자, 라트비아 보병사단은 적군에 가담하여 소위 ‘붉은 라트비아 보병대(*Krasnye Latyshskie strelki*)’로 불리었다. 다음을 보라. B.A. Toman, *Latyshskie strelki i krasnogvardeitsy v perbyim god Sovetskoï vlasti* (Moscow: 1975); idem., “Pervoe pochetnoe revoliutsionnoe Krasnoe znamia VTsIK,” *Voennno-istoricheskii zhurnal*, vol. 22 (1965), pp.112-115; Stanley W. Page & Andrew Ezerzailis, “The Lenin-Latvian Axis in the November Seizure of Power,” *Canadian Slavonic Papers*, vol. 19 (March 1977), pp.32~49.

83) 흔히 ‘붉은 코사크(*Chervonnoe kazachestvo*)’로 불렸던 프리마코프 예하 기병사단은 애초 우크라이나 지역의 파르티잔 부대들의 통합으로 창설된 부대이다. 1919년 5월 이후 전황이 위급해지자, 남부전선으로 이동하여 작전 중이었다. RGVA, f. 33988, op.2, d. 145, l. 198. 1919년 12월 4일 공화국 혁명군사위원회 명령 제2062/442호로 사단은 제8 ‘붉은 코사크’ 기병사단(*8-ia kavaleriiskaia Chervonogo kazachestva*)이라는 명칭을 부여받았다. RGVA, f. 14, op.1, d. 4, ll. 18-19; V.A. Antonov-Ovseenko, *Zapiski o grazhdanskoi voine*, 4 vols. (Moscow: 1924~1933), vol. 2, p.95. 제8기병사단은 1920년 12월 13일 공화국 혁명군사위원회 명령 제2797/559호로 제17기병사단과 통합되어 제1 키예프 기병군단(*1-i Kievskii konnyi korps*)으로 재편된다. A. Martynova ed., *Chervonoe kazachestvo: Sbornik materialov po istorii Chervonogo kazachestva* (Khar'kov: 1923-1924), pp.114-116.

백군의 방어선을 돌파하자, 프리마코프의 기병사단이 그 돌파지점으로 신속하게 진입해 나흘 동안 백군을 몰아붙였다. 작전의 최초 47시간동안 프리마코프의 기병사단이 이동한 거리는 약 125km에 달했다.⁸⁴⁾ 4일 뒤인, 1919년 11월 6일 프리마코프는 쿠르스크 지역의 파테즈(Fatezh)에 주둔하고 있던 데니킨 군대의 후위를 공격하였고, 이 작전의 결과 백군은 최소 120km 이상 후퇴하였다.⁸⁵⁾ 1919년 11월 14일에 프리마코프는 데니킨의 백군 주요 보급기지와 철도가 위치하였던 전략적 요충지인 우크라이나의 리보프(L'vov)를 습격하여 15일 이를 탈환하고 장갑열차 5대를 노획했다.⁸⁶⁾ 리보프 습격으로 백군의 방어선은 150km 이상 뒤로 밀려났다.⁸⁷⁾

프리마코프는 위의 대규모 기병습격에 대해 내전 이후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내전에서 적군과 백군의 후방 모두 매우 취약하였다. ... 이러한 상황에서 기병은 쉽게 적진 후위를 파고들 수 있었다. 적 후방에 대한 지속적인 교란활동뿐만 아니라 적 후방에 대한 대규모 습격이 발생하곤 하였다.”⁸⁸⁾ 프리마코프는 보병과의 공조를 통한 대규모 기병습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전투 첫째 날에 보병이 적의 제1선을 돌파해 적 중심을 파고들면, 이 돌파를 통해 기병은 제1선에 밀집해있던 적 병력의 방해를 받지 않고 기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 후에 기병은 적의 통신망과 보급기지와 후방을 맹공격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퇴각하는 적과 교전을 벌였다. 환언하면, 기병습격이란 전투를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84) Al'bert P. Nenarokov, *Vernost' dolgu: O Marshale Sovetskogo Soiuza A.I. Egorove* (Moscow: 1973), p.85.

85) G. Vasiley, “Reidy krasnykh kazakov,” *Voennyi Vestnik*, no. 2 (1968), pp.55~56.

86) Al'bert P. Nenarokov, *Vernost' dolgu: O Marshale Sovetskogo Soiuza A.I. Egorove* (Moscow: 1973), p.87.

87) Martynova ed., *Chervonoe kazachestvo*, pp.72~79.

88) *Sbornik trudov VoЕННО-nauchnogo obshchestva pri VoЕННОi Akademii*, vol. 2 (1922), p.4.

것을 의미하였다.”⁸⁹⁾

전략기병은 적 중심에 대한 타격을 통해 적의 지휘와 통제를 교란하고 적의 사기를 꺾어놓는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곤 하였다.⁹⁰⁾ 이러한 전략기병의 대표적인 예가 부돈니의 제1기병군이였다. 제1기병군은 적 정면에 대한 공격을 회피하고 양익으로 또는 빈틈을 통해 적의 측면으로 이동하였다. 일단 적 측면이 노출되거나 와해되고 나면, 이에 대응할 예비 병력이 없는 적은 자연스럽게 진영 전체의 노출을 피할 수 없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전투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 때 기병은 적의 통신선이나 교통요지를 공격함으로써 신속하게 초기의 승기를 이어가고 적의 저항을 분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작전들 중 가장 의미 있는 작전은 폴란드군에 맞서 1920년 6월과 7월 사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일련의 전투들이었다. 당시 캅카스 전선에서 남서부전선으로 배치된 제1기병군은 이 두 달 동안 키예프를 탈환하고 폴란드군을 우크라이나에서 몰아내기 위한 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작전 개시 당시, 제1기병군은 기병 1만 8,000명, 대포 52문, 기관총 350정, 장갑열차 5대, 1개 장갑차량 분견대, 항공기 8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폴란드 제3군은 넓은 전선에 전 병력을 얇게 배치해놓았다. 즉, 폴란드군은 예비부대가 필요할 수 있는 기동전의 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다. 적군 기병은 이런 식으로 배치된 폴란드 제3군을 손쉽게 제압하였다. 제1기병군은 6월 첫째 주 폴란드군 방어선을 돌파한 뒤 베르디치우(Berdychiv)에 대한 기병습격을 개시하였다. 이 작전에서 제1기병군은 적군 제12군과의 공조를 통해 폴란드군을 포위하고자

89) Ibid., pp.5-6.

90) Jacob W. Kipp, "Soviet Military Doctrine and the Origins of Operational Art 1917-1936," *Soviet Military doctrine from Lenin to Gorbachev 1915~1991* (Westport: 1992), pp.104~105.

하였다.⁹¹⁾ 다음 한 달 동안 제1기병군은 리우네(Rivne) 인근에서 격전을 벌였고 7월 4일에 우회 기동작전으로 리우네를 점령하였다.⁹²⁾ 본대로부터 별다른 보급 없이 약 43일 동안 진행된 이 작전은 보병과의 제병협동작전 속에서 적군이 어떻게 대규모 기병 운용으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1920년 백군을 격퇴하기 위한 마지막 작전에서, 당시 남부전선 사령관 M.V. 프룬제(Mikhail Vasil'evich Frunze) 또한 적군 기병을 전략기병으로 운용하였다. 프룬제는 먼저 제2기병군에게 드네프르 강을 도하하는 백군 기병의 습격을 저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뒤, 제1기병군에게 크림반도 북쪽에 주둔하고 있는 브랑겔 휘하의 백군에 대한 포위 기동전을 펼치라고 지시하였다. 제1기병군의 포위 기동이 무위로 돌아가자 프룬제는 남부전선 예하 제6군의 보병 병력으로 브랑겔 군 정면에 대한 또 다른 공격을 시도하는 동시에 적군 기병에게 후면에서 백군의 전열과 보급기지에 대한 습격을 명령했다. 결국 브랑겔 군대의 전선을 제6군이 돌파하자, 프룬제는 패주하는 브랑겔 군대를 추격하기 위해 재차 제2기병군을 투입하였다.⁹³⁾

폴란드군 총사령관 J.K. 피우수트스키(Jozef Klemens Pilsudski) 또한 소비에트-폴란드 전쟁 초기에는 여타 군사지휘관들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내전에서 나타난 기병운용에 회의적이었다. 적군 지휘부에서 복무하고 있던 구(舊) 제국군 장교출신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제1차 세계대전의 전투 경험에 집착하고 있던 그에게 “유목민 방식으로 기병을 운용”하는 것은 오래된 ‘타타르의 원정’을 떠오르게

91) Iu.A. Zotov, “Boi 1-i konnoi armii v raione Rovno v iune 1920g.,” *Voina i revoliutsiia*, no.2 (1929), pp.102~103.

92) Ibid., pp.104~118.

93) M.I. Vladimirov, *M.V. Frunze: Voennaia i politicheskaia deiatel'nost'* (Moscow: 1984), pp.137~147; Vasilii V. Dushen'kin, *Vtoraia konnaia: Voeno-istoricheskii ocherk* (Moscow: 1968), pp.189~206.

하는 해프닝이었을 뿐이었다.⁹⁴⁾ 하지만 소비에트-폴란드 전쟁 이후 피우수트스키는 대규모 전략기병에 의한 기병습격의 영향력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최악의 상황은 기병습격의 영향력이 전선 그 자체에서보다 전선을 넘어, 즉 후방에서도 감지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몇 번이고 계속해서 심지어 전선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후방지역에서도 그리고 종종 상급 부대의 사령부에서도 [기병 습격의] 극심한 공포가 감지되었다. 계속해서 이 공포는 점점 더 심하게 퍼져 나갔다. [...] 이 새로운 종류의 전투수단, 즉 부돈니의 기병습격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우리에게 유례가 없는 이상한 전투 방식이었으며 믿기 어렵고 대응할 수 없는 성격의 힘이었다.”⁹⁵⁾

4. 맺음말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던 기병은 러시아 내전 동안 완벽하게 부활하였다. 군마와 인원이 부족했던 적군은 비교적 신속하게 백군 기병에 맞설 적군 기병을 형성하였으며, 적군 기병은 단시간에 전술적 군사 조직(소규모 파르티잔부대나 소대 혹은 중대규모의 부대)에서 상급 조직(별동 기병연대, 여단, 사단과 군단)으로 발전하였다. 내전 이후 적군의 많은 군사이론가들이 인정하였듯이, ‘마몬토프 습격’으로 대표되는 백군의 기병 운용이 기병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켰으며, 적군 지도부가 이러한 경험에 큰 영향을 받았음 또한 사실이다.⁹⁶⁾ 비록 적군이 백군보다

94) Jozef Pilsudski et al., *Year 1920 and Its Climax: Battle of Warsaw during the Polish-Soviet War 1919-1920* (London: 1972), p.75.

95) Ibid., p.83, 137.

뒤늦게 기병의 중요성을 인식했을지라도, 백군이 내전 초기에 보여준 대규모 기병대를 이용한 기병습격은 이내 적군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적군은 이에 더 나아가 기동을 화력과 결합하거나 보병과의 공조 등을 통해 제병협동에 대한 의미 있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러시아 내전에서의 적군 기병운용은 기병의 ‘부활’이상을 의미하였다. 적군 기병은 러시아 내전의 특성과 현대전의 기술적 변화에 적응한 새로운 형태의 군사력이었다.

이를 통해 볼 때, 러시아 내전 이후 적군 내에서 군부 엘리트층을 형성하게 될 기병지휘관들은 적어도 도검류와 기마돌격에만 집착하던 구태의연한 ‘전술 기병적’ 사고방식을 가진 인물들이 아니었다. 이들 지휘관들에게는 보병을 포함한 여타 병과와의 공조, 화력에 기반한 하마전투, 기동력과 화력의 결합, 대규모 기병의 전략적 목표에 대한 습격, 장갑차량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수용 등에 대한 거부감이나 심리적 장벽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바로 그들이 백군과의 전투를 통해 이러한 특징들을 구현해낸 당사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내전 이후 적군 내에서 벌어진 장차전의 성격이나 군사교리와 관련된 논의들이, 새로운 군사기술과 장비의 도입을 놓고 ‘보수적’인 인물들과 ‘혁신적’인 인물들 간의 갈등이라는 단순한 틀보다는 보다 다층적인 측면 속에서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 향후 연구는 이러한 다층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적군 기병의 등장과 그 운용은 단지 러시아 내전 시기에 국한된 주제가 아니다. 러시아 내전의 특성과 기병 운용이라는 객관적 요소 외에도, 지휘관들의 개인적 혹은 집단적 특성이라는 주관적 요소도 향후 적군의 전략과 전략 문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는 내전 초기의 기병 형성이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가

96) 러시아 내전 이후, ‘마몬토프 습격’이 적군 군사이론가들에게 미친 영향을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다음을 보라. K. Monigetti, *Sovmestnye deistviia konnitsy i vozdushnogo flota* (Moscow: 1928), pp.92~100.

아니라 일선 지휘관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파르티잔 지휘관들에 의해 자체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중앙으로부터의 명령이나 여타 지원 없이 전선에서 자체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조직하여 백군에 대항하였던 이들 파르티잔 지휘관들은 기병이 적군 내에서 공식적인 병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내전 당시의 전공으로 내전 이후 군사교리와 군사조직에 큰 영향을 행사하게 될 군부 엘리트로 성장하게 된다.⁹⁷⁾ 지휘관들의 출신성분과 교육배경 그리고 지휘관들 내에 존재했던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이, 소연방의 당-군 관계뿐만 아니라 러시아 내전 이후 그리고 독소전을 거쳐 냉전시기에 이르는 기간에 소연방 군부가 보여준 일종의 ‘전략문화’를 감지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언해 본다.

[원고투고일: 2015.10.10, 심사수정일: 2016.2.10, 게재확정일: 2016.2.19.]

주제어 : 러시아 내전, 적군, 백군, 적군 기병, 전략 기병, 제1기병군,
마몬토프 습격, 기동, 제병협동부대 전술

97) 러시아 내전부터 1930년대 말까지 약 300명의 적군 기병 지휘관들의 전기와 경력을 모은 필자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러시아 내전 기간에 연대급 이상의 기병대를 지휘했던 인물들의 경우 1960년대 중후반, 내전 이후인 1920~1930년대에 연대급 이상의 기병대를 지휘했던 인물들의 경우 최소 1970년대 중후반까지 군부에 남아 복무하고 있었다.

<ABSTRACT>

The Red Cavalry and Its Employment in the period of the Russian Civil War

Lee, Jeong-ha

This article focuses on the course of creating massive strategic cavalry in the Red Army and on its employment during the Russian Civil War. The inept use of cavalry in the First World War and the development of military technology led to an underestimation of cavalry's military role in the European armies. Contrary to this perception, it was the Russian Civil War in which both the Red and the White Armies' cavalries played a leading role because of two primary features: immensity of its battlefield and combatant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egradation. Long and shallow defense line, an important characters of the Civil War, stemmed from these two factors. Inevitably, the Red Cavalry was the result of those distinctive military circumstances.

The formation of the Red Cavalry went against the prevailing theory in other European armies. At the early period of the Civil War, the Bolsheviks also had a negative attitude toward cavalry, and the Red Cavalry could not get institutional and material aids from Moscow. Therefore, the beginning of the Red Cavalry was based on several partisan units organized autonomously in the fronts. Since the White Army took initiative of the Civil War by using maneuver and mobility of its cavalry, however, the Red Army had made every effort to raise the Red Cavalry and its massive strategic cavalry. The fighting methods of the Red Cavalry in the Civil War could be characterized by: 1) the combination of maneuver and firepower; 2) the cooperation with the other branches

(particularly with infantry); and 3) the massive strategic cavalry. Eventually, the Red Army won the Russian Civil War by employing the massive strategic cavalry in accordance with a new military condition.

Key Words : Russian Civil War, Red Army, White Army, Red Cavalry,
Strategic Cavalry, First